

# 전남대 의예과 418점·조선대 의예과 416점

## 6월 모평 실재점 결과 진학 가능 대학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 평가 결과 전남대 의예과는 418점, 치의학과는 414점, 조선대 의예과는 416점, 치의예과는 413점 이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 4일 광주지역 고3 수험 생이 치른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재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종합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이들은 "6월 모의평가처럼 영어가 실제 수능에서도 어렵게 출제되면 고3 재학생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수능 등급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광주과기원 392점·광주교대 358점

## 에너지공대 399점·연고대 394점

실재점 결과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영어, 한국사 제외)을 적용하면 전남대 인문계열 영어교육과 지원점수는 360점, 국어교육과 357점, 경영학부 356점, 행정학과 350점, 정치외교학과 344점으로 전망됐다. 국어국문학과 342점 등 인문계열 지원가능 평균 점수는 334점 안팎이었다.

자연계열 의학과는 418점, 치의학과 414점, 약학부 411점, 수의예과 409점, 전기공학과 382점, 간호학과 360점, 수학과 360점이 지원 가능선이었다.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수학(미적분·기하)

지정 학과 346점, 수학 미지정(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모두 지원 가능) 학과는 336점선이었다.

조선대의 경우 의예과 416점, 치의예과 413점, 약학과 409점, 간호학과 353점 내외로 분석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392점 내외, 광주교육대학교 358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399점 안팎이었다.

수도권에서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401점, 자연계열 407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수학·미적분·기하+과탐 2과목, I+II조합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충족한 학생들 표본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394점, 자연계열 393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6월 모의평가 광주지역 전체 응시자는 1만199명으로 전년 대비 480여명 증가했다. 선택 과목별 응

시인원은 국어 1만172명(화법과작문 7027명, 언어와매체 3145명), 수학 1만181명(확률과통계 4953명·미적분 5064명·기하 164명)이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학담당 장학관은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돼 진학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만큼 기존 선택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9월 모의평가까지 치르고 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6월 모의평가 실재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실시한다. 8월 5-14일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실에서 2025 대입 수시모집 대비 고3 집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월출산 경포대 계곡에 올 여름 발 담그세요

### 8월 18일까지 한시 개방

출입금지 구역인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계곡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탐방이 허용된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경포대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출입 가능한 장소는 경포대 탐방로 입구부터 경포대 삼거리에서 바람재 방향 500m지점으로 총 1.6km 길이다.

이 기간 계곡내 손·발을 담그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사·목욕(수영), 야영,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제한·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김다인 기자 kdi@



8일 광주시 북구청 민원실에서 마련된 키오스크 체험존에서 시민들이 사용법을 실습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실버 세대 키오스크 체험하세요”

### 광주 북구, 체험존 마련

인건비 상승, 트렌드 변화 등으로 직원을 줄이기 위해 설치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광주에서도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음식물 주문이나 결제에 애를 먹고 있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들을 위해 광주시 북구가 팔을 걷어부쳤다.

8일 광주시 북구는 북구청 민원실과 북구 정보화교육장(효죽2공영주차장 1층)에 '키오스크 체험존'을 마련했다.

체험존에서는 식당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와 비슷하게 준비된 교육용 단말기를 만나볼 수 있다.

직접 식당에서 주문하듯 모니터를 눌러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기계에 설치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영수증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 대중교통 표를 예약하고 영화관 좌석을 선택해볼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 온갖 민원서류도 발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험존 내에 교육 책자와 안내 인력이 배치돼 있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체험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보화교육장에서는 12월까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무료로 열린다. 동영상 제작·편집, 유튜브 방송과 SNS 소통 방법 등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매일 1일 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희망 강좌를 수강 신청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출범

복수노조였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별로 가입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로 통합됐다.

8일 지회는 광주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문 앞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결성총회 및 노조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결의했다.

그동안 GGM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1노조)과 'GGM노동조합'(2노조)이 결성돼 있었다. 지난 4월 23일 2노조가 먼저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 지난 4월 1노조가 이어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지회는 "단일노조가 됨에 따라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GGM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이날 결성총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

모터스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 청년이 행복한 노동존중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사측이 라인직업자의 간이 의사 절거 명령을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한 김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데 대해 "다른 완성차 라인에는 모두 의자가 설치돼 있고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라인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의자를 설치해 현장 노동자의 피로감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교섭장구단일화 이의신청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이들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4차례 교섭에 불참한데 대해 노조법에 따라 중노위 결정문이 조달하기 전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오월단체 “5·18 왜곡 국세청장·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오월단체들이 5·18 왜곡·편향을 자행하거나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세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오월대책위)는 8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5·18을 왜곡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자기 석사논문('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에서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

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 5·18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며 전씨에 대해 '국가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 등으로 표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자신의 SNS 게시물에 5·18을 폄하하는 댓글이 달리자 '좋아요'를 눌렀다. 해당 댓글에는 5·18과 관련해 '폭도의 선동선전에 의해 무고한 시민 사망자들이 속출했다', '홍여족(광주 시민을 비하하는 표현)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해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이 됐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5·18기념재단은 "정부와 여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한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파동과 '황

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낙마를 경험했다"며 "더 이상 공식사회에 역사를 왜곡·편향하는 인사가 없어야 한다. 5월단체와 재단은 5·18왜곡·편향에 원천히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적·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월대책위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독재자 전두환의 총칼에 맞섰던 광주·전남 공동체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국민은 대통령의 폭주에 맞서 거대한 탄핵의 물결을 형성할 것이며, 그 길의 가운데에 5·18의 후예인 광주·전남 공동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